

30년 된 청바지

30여 년 전 청바지를 만드는 회사에서 잠시 일을 한 적이 있다. 그 공장은 유명 청바지를 만들었던 곳이다. 그래서 그런지 조금이라도 바느질이나 색깔에 문제가 생기면 절대로 팔지 않았고 모두 헐값에 다른 사람들에게 넘기곤 했다. 한 번에 수 십 만 불의 손해를 보기도 했다. 그런 중 회사에서 일을 하던 사람들에게도 원하면 그 불량품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2-5에 \$30-40 하던 청바지를 구입할 수 있었으니 얼마나 좋았을까? 몇 주 전 집안을 정리하다가 그 청바지가 나왔다. 30년 전에 구입해서 잘 보관하던 것이다. 지난 30년 동안 아끼고 아끼면서 다른 바지들은 입었으나 그것만큼은 입지 않고 구석에서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미국 동서부로 3번씩 이사를 하던 중에도 그 청바지는 딱지가 붙은 그대로였다.

그 청바지를 발견한 그날도 실은 입고 싶지 않았다. 새 것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새 것을 보관했다가 나중에 사용하는 버릇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날은 생각이 달랐다. 다시 또 넣어두면 언제 입을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큰 결단을 하며 30년 묵은 그 청바지를 입었다. 그런데 실망이다. 그 이유는 그런 청바지를 입는 사람이 더 이상 없기 때문이다. 잘 접혀 보관되었을 때에는 새 것이었지만 지금 입어보니 허벅지 쪽에 통이 얼마나 크던지 그 청바지를 입고 나가면 사람들이 모두 쳐다 볼 것 같았다. 그 당시에는 다리통이 큰 청바지가 큰 유행이었지만 30년의 시간이 흘렀기 때문이다. 또한 허리가 맞지를 않았다. 끝에 단추를 풀고 다닌다면 괜찮겠지만 어디 그렇게 입을 수 있겠는가?

30년을 잘 간직했던 청바지를 입을 수 없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 그것도 모르고 여태껏 보물과 같이 여기며 가지고 다닌 것이다. 그것을 알았다면 맞는 사람에게 줄 수도 있었고 “고맙다”는 말이라도 들을 수 있지 않았겠는가? 소중한 여간다고 모두 보물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다. 시간을 놓치지 않고 상황에 맞게 사용하고 나눌 때에 오히려 빛이 되고 보물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 많다. 생명이 그렇고, 누리는 모든 것과 또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것을 성경말씀에는 각자에게 주신 은사라고 설명하면서 알려 주신다. 그런데 그것을 알면서도 수 십 년을 잘 보관한다고 보물일까? 아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을 전부 성실하게 사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 받을 때에 보물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베드로전서 4장 9-10절)라고 하신다. 가만히 생각하면 할수록 받은 것이 더 기억난다. 그렇게 많다. 어떻게 전부 사용하다가 하나님 앞에 갈 것 인가? 고민해 본다.

내가 받은 모든 것을 사용 받고자 할 때에 그 인생은 아름다운 믿음의 생활이 될 것이다. 잘 접혀 창고에 있는 모습이 아니라 펼쳐져 마음껏 사용할 때에 그 은사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은 능력으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낼 것이다.